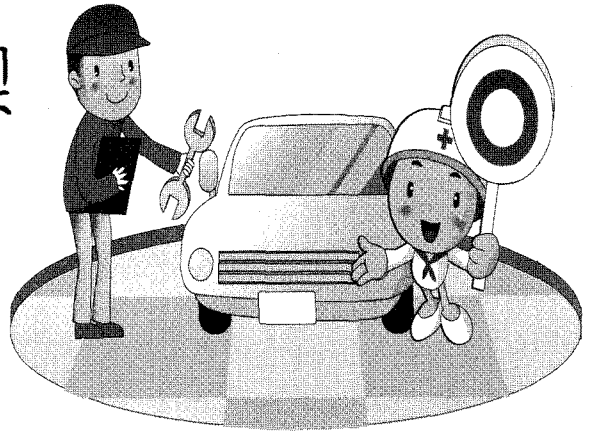


타이어 안전검사 및 설문조사 결과



우리협회는 타이어 정비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타이어의 관리 및 사용방법을 홍보하고자 업계와 공동으로 타이어 안전사용 검사 및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고는 우리협회가 운전자들의 타이어 안전사용·관리에 관한 실태 파악을 위해 금년 3~8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시한 안전검사와 7, 8월에 실시한 타이어 안전관리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도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타이어 안전검사 결과

금년 3~8월간 자동차검사소(3곳) 5회와 고속도로 휴게소(1곳) 1회씩 총 6회 실시한 타이어 안전검사에서는 승용차 총 672대의 타이어를 검사한 결과 5대 중 1대 이상의 차량이 타이어 정비가 불량한 채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 실시개요

차수	일 자	장 소	검사대수(대)
1차	3월 13일	성산자동차검사소(서울 마포구)	104
2차	4월 17일	강남자동차검사소(서울 강남구)	76
3차	5월 15일	노원자동차검사소(서울 노원구)	101
4차	6월 19일	성산자동차검사소(서울 마포구)	103
5차	7월 24일	여주휴게소(영동고속도로 강릉방향)	176
6차	8월 14일	성산자동차검사소(서울 마포구)	112
총 6회, 승용차 672대			

나. 검사결과

(1) 정비불량률

금년 6개월간(3~8월) 실시된 안전검사에서는 총 검사대수 672대중 정비불량 차량은 183대로 정비불량률(총 검사대수 중 타이어 정비불량 차량대수의 비율)은 27.3%로 나타났다. 이는 08년 검사(총 8회 실시) 평균과 대비 시, 자동차검사소 검사는 5.3%p 감소를 보였으나, 고속도로 휴게소 검사에서는 9.5%p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8.5%p 증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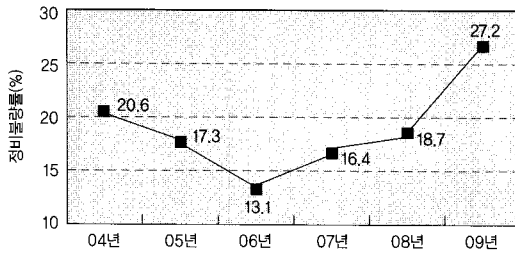
최근 6년간(04~09년)의 추이를 보면, 0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인 정비불량률은 07년부터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협회가 07년부터 실시한 '자동차 검사소'에서의 타이어 안전검사 정비불량률이 고속주행

〈 검사장소별 정비불량률 〉

제품 분류	08년			09년		
	검사 차량 대수	정비 불량 대수	정비불량률(%)	검사 차량 대수	정비 불량 대수	정비불량률(%)
자동차검사소	447	156	34.9	496	147	29.6
고속도로휴게소	940	103	11.0	176	36	20.5
합 계	1,387	259	18.7	672	183	2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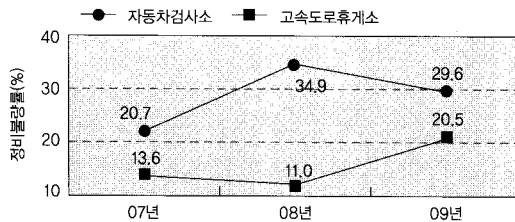
을 하는 차량들이 이용하는 휴게소에서의 불량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 최근 6년간 정비불량률 추이 〉



최근 3년간 검사장소별 정비불량률을 보면, 09년 자동차검사소와 고속도로 휴게소간의 정비불량률 차이는 9.1%p로 전년(23.9%p)보다 줄어들었지만, 자동차검사소의 정비불량률은 여전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정비불량률을 상회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검사장소별 정비불량률 추이 〉



(2) 유형별 정비불량 타이어 사용률

금년 3~8월간 검사차량 중 정비불량 타이어의 차량 비율을 보면, 총 검사대수(672대) 중, 『공기압 부족』

20.1%(135대), 『과마모』 5.5%(37대), 『핑크(못박힘)』 3.9%(26대), 『손상』 1.0%(7대), 노화 등 『기타』는 1.3%(9대)로 나타났다.

08년 검사 평균 대비, 금년에는 『공기압 부족』타이어는 11.8%p 크게 증가한 반면, 『과마모』와 『손상』타이어 사용 차량은 감소하였다.

〈 연도별 평균 정비불량 유형별 사용률(%)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공기압부족	7.7	4.2	7.7	8.3	20.1
과마모	5.3	6.7	6.0	7.3	5.5
핑크(못박힘)	1.9	1.8	2.4	1.9	3.9
손상	1.2	1.0	1.3	2.5	1.0

(3)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금년 3~8월간 검사에서의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을 보면, 타이어 정비불량(214건) 중, 『공기압 부족』이 63.1%(135건)로 가장 큰 비중으로 나타났으며, 뒤이어 『과마모』가 17.3%(37건), 『핑크(못박힘)』 12.1%(26건), 『손상』 3.3%(7건), 『기타』 4.2%(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05~09년)간 정비불량 총 건수 중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을 단순 계산으로 산출하였을 때, 『공기압 부족』과 『과마모』가 각각 43%, 34%로 전체 77% 정도 차지하였고, 『핑크(못박힘)』 11%, 『손상』 11%, 『기타』 4% 차지하였다.

< 연도별 평균 정비불량 유형별 비중(%) >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공기압부족	40.4	29.7	42.1	39.8	63.1
과마모	37.6	47.3	33.1	34.9	17.3
펑크(못박힘)	10.3	12.4	12.9	9.3	12.1
손상	8.9	6.9	7.3	11.8	3.3
기타	2.8	3.7	4.6	4.2	4.2

다. 시사점

금년 8월까지 실시된 검사에서도 예년과 같이 자동차 검사소에서의 정비불량률이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주행보다 시내 주행 또는 운행량이 적은 차량의 타이어 점검에 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마모」, 「손상」과 같이 운전자가 직접 확인이 가능한 외상부분 관련 불량률은 감소하였으나, 「공기압 부족」, 「펑크(못박힘)」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의 불량률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내 주행을 주로 하는 차량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타이어 관리에 대한 안전 홍보와 '본인 차량의 타이어 적정공기압 알기' 등 공기압의 중요성을 알릴 수 있는 공익 캠페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타이어 안전사용 · 관리 설문조사 결과

가. 실시개요

운전자의 타이어 안전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금년 7, 8월 두달간에 걸쳐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강릉방향)와 서울 성산자동차검사소에서 타이어 안전검사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승용차, 레저용, 승합차 운전자로 총 403명이었다.

나. 설문조사 결과

(1) 타이어 교체

○ 대부분의 운전자는 「3년」을 전후로 타이어를 교체 응답자(403명) 중 타이어 교체관련 질문 응답자(351명) 중 3년 미만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한다는 응답자는 전체 47.3%(166명)으로 나타났고, 3~5년 정도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한다는 응답자도 45.0%(158명)로 응답자 90%이상이 3년을 전후로 타이어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미만	3~5년	5년이상
47.3% (166명)	45.0% (158명)	7.7% (27명)

○ 10명 중 5명 정도는 「4~6만Km」정도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

4~6만Km 정도 사용하고 타이어를 교체한다는 응답자는 304명 응답자 중 52.3%(159명)로 나타났다.

4만Km미만	4~6만Km	6만Km이상
32.2% (98명)	52.3% (159명)	15.5% (47명)

(2) 타이어 문제경험

○ 「못 박힘」이 가장 많았고 「갑작스런 타이어 터짐(파열)」, 「타이어 옆면이 혹처럼 부풀어 오름」등의 순으로 10명 중 6명 정도가 타이어 문제 경험이 있다고 응답 응답자 403명 중 타이어로 문제를 겪었다는 응답자는 250명으로 62.0%를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타이어 문제를 겪은 응답자 중 6%는 자동차 사고로까지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 문제가 된 유형은 못 등의 이물질이 박

